

11/6(월) 열왕기상 4

열왕기상 2: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3장 이하를 보면 솔로몬은 다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 예배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과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상 23-29장).

대장부가 되라

당시 다윗은 건강에 이상을 느꼈는지 후계자가 된 솔로몬을 불러서 여러가지 유언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1-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했는지 그 단서를 대상 28:20절과 대상 29: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대상 28:20,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대상 29:1,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 이유는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솔로몬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다윗은 그의 때에 성전 짓기를 간절히 고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대상 28:2-3,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6,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이 커다란 공사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3-4절,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첫째로 그의 통치 기간 중에 형통함을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의 왕권 초기에 이 같은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라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지혜와 더불어 형통함의 축복도 더불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왕상 3:12-13,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둘째로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삼하 7:14-16,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지금 그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도 유언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말년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그의 아들의 대에 가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반역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약속대로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록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한 때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 없이 그의 뜻을 그가 스스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지금은 사람의 뜻과 생각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도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유언대로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전쟁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 3.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정후란시스(중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4. 교회를 위한 기도:** 트럼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